



김 하 중

올림픽 정신과 훌륭한 올림픽

“나의 올림픽, 우리의

일체의 전쟁행위를 멈추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며 평화와 이상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올림피아 제전이 다시 인류역사에 자리 잡은 것은 고대 올림픽이 중단된지 실로 1503년만인 지난 1986년 쿠베르탱남작에 의해서입니다.

제1회 아테네대회로 시작된 근대올림픽운동은 그 이상과 목표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추구했던 평화정신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약 90년전 동안 스물세번 대회를 치르면서(이중 세번은 세계대전으로 유산) 전세계인들은 4년마다 모여 함께 화합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고대그리스인들의 화해정신이나 쿠베르탱남작의 평화정신을 대표되는 올림픽 정신이 아무런 상처없이 오늘날까지 지켜져 온 것만은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역학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기 시작하던 1970년대에 들어와 올림픽 정신은 심한 상처를 입기에 이르렀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구월단의 이스라엘 선수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한 72년 뮌헨대회,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발, 아프리카 26개국 불참해 오륜대회가 아닌 사륜대회로 전략하고 만 76년 몬트리올대회, 정치적 이해관계로 동서 양진영간 서로의 불참으로 맞섰던 지난 80년 모스크바와 84년 LA대회 등은 올림픽의 지속 여부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서는 올림픽 정신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올림픽 운동에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제기했던 이들 올림픽들은

“올림픽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참여”

결국 훌륭하지 못한 대회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화해와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올림픽이란 바로 올림픽의 정신을 지켜내고 또한 살려내는 대회를 말합니다.

정치·이념·인종적 갈등으로 그 외형적인 면에서 실패한 올림픽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림픽 정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4년 열렸던 LA대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회를 유치했을 때 많은 시민과 여러 단체들은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길거리와 나와 데모를 하는 등 올림픽 개최 거부 움직임은 매우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LA 시민들은 모두가 올림픽에 빠져 들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해를 덮어 두고 모두 올림픽 정신으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LA 일대에 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정당당히 싸우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올림픽 정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후에는 차기올림픽을 다시 유치하자는 시민들의 주장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세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 넣습니다.

오는 9월 17일 개막될 서울올림픽대회는 그 외형적인 규모에서나 내실의 면에서나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실로 16년만에 이념 갈등의 상징인 동(東)과 서(西), 빈부갈등의 상징인 남(男)과 북(北)이 서로 화해하고 화합, 협력하는 잔치마당을 펼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계 161개국이 참가한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정신으로 전인류가 되돌아가 인류평화와 전진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공과 함께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실있는 준비입니다.

올림픽 운동이 연륜을 더해감에 따라 올림픽 성공의 주체는 대회조직 위원회나 주최도시가 아니라 바로 일반시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소짓기 운동, 심지어 모기·파리잡기 운동까지 벌였던 동경대회, 국민학교 어린이에서부터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시민이 자원봉사에 나섰던 LA대회, 로키산맥 중턱의 작은도시에서 세계인들의 축제마당을 멋지게 치루어 냈던 지난 2월 캘거리동계올림픽대회 등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8년 동안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꾸준히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동차에 호돌이 스티커를 붙이고 죽음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결코 외국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휴지 10만점 줍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외딴 섬마을의 선생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올림픽을 내가 치룬다는 주인의식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의 올림픽, 당신의 올림픽이 아닌 나의 올림픽, 우리의 올림픽이라는 생각으로 전국민이 모두 참여하고 즐기는 올림픽대회, 그러한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다면 제24회 올림픽대회는 올림픽 역사에 찬연히 기록되고 한국인은 온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국민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필자=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운영실장〉

● 올림픽 표어

너와 나의 참여속에 호돌이의 힘찬전진